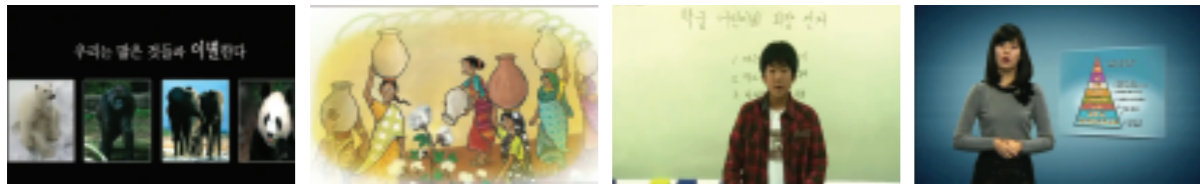


온라인 시민교육 콘텐츠 제작

민주주의의 가치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미디어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말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간명한 그림 하나가 명쾌한 이해를 돕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황한 서술보다는 한 장면의 영상이 강렬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시각적 매체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시각적 매체는 하나의 도구다. 도구는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다만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이 선악을 결정한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기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관한 것들이다. 국가와 사회의 근본정신이자 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역시 그러하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그래도 명쾌한데 그것의 내용을 이루는 다양한 민주주의의 가치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야기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 부딪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만 이야기하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내용 즉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해 우리는 이야기해야 한다.

온라인 시민교육 콘텐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던 중 교사들로부터 민주주의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또한 몇몇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EBS의 '지식채널6'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하지만 기존의 콘텐츠들은 대체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교실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들에 관해 수업을 할 때 호소력 있는 영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청한 것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관해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민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게 됐다.



2010년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모아 △공동체 △연대의식 △자기표현 △차이의 인정 △정의·저항 △참여와 실천 등 6가지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각각의 주제는 5분 남짓의 동영상과 교사들의 수업활용을 돕기 위한 교안, 그리고 해당 주제와 관련한 기존의 콘텐츠들을 정리한 목록이 함께 제공된다. 사업회는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다루는 시민교육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시민교육 콘텐츠는 올해 예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kdemocracy.or.kr>)의 개편작업 이후 서비스 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유로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http://kr.youtube.com>)에서 만날 수 있다 (검색어: '민주주의의 가치').

2011년 제1차 임원연수회와 이사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임원연수회를 열어 사업회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연수회 이후 이사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했다.

『4·19혁명』 발간

사업회는 한겨레티んと 함께 '십대가 만난 현대사 시리즈' 첫권 『4·19혁명』편을 발간했다. 이 시리즈는 십대들에게 한국 현대사를 쉽고 친근하게 들려주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4·19혁명』편은 청소년들이 4·19혁명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재구성했다.

(윤석연 글, 소복이 그림, 한겨레티んと 10,000원)

